

금강반야바라밀경

金 剛 般 若 波 羅 蜜 經

형상으로 나를 보려 하거나,
음성으로 나를 찾으려 한다면,
이 사람은 사도(邪道)를 행함이니,
여래를 능히 뵈옵지 못하리라.

개경계 開經偈

위없이 높고 깊은
미묘하신 가르침.
영원토록 만나 뵈기
참으로 어려운데,
제가 이제
보고 듣고 받아 지니어,
부처님의 참되신 뜻
알아지이다.

금강반야바라밀경

金 剛 般 若 波 羅 蜜 經

제 1 분 법회를 이룬 연유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如是我聞].

한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급고독원에 계시어 대 비구중(大比丘衆) 천이백오십 인과 더불어 함께 하 셴다.

그때는 세존(世尊)께서 공양하실 때라, 큰 옷 입으시 고 발우 가지시어 사위성에 들어가시어 밥을 비시는 데, 그 성중에서 차례로 비시옵고 본 곳으로 돌아오 시어 공양을 마치신 뒤, 의발(衣鉢)을 거두시고 발을 씻으신 다음 자리를 펴고 앉으셨다.

제 2 분 선현(善現)이 법을 청하다

그때 장로(長老) 수보리(須菩提)가 대중 가운데 있더니, 곧 자리에서 일어나 바른쪽 어깨에 옷을 벗어 메고 바른쪽 무릎을 땅에 꿇으며, 합장 공경하면서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희유(希有)합니다. 세존이시여, 여래(如來)께서는 모든 보살들을 잘 호념(護念)하시며, 모든 보살들에게 잘 부촉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선남자·선여인이 아누다라삼막삼보리심을 일으키오니, 마땅히 어떻게 머물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옳다 옳다. 수보리야, 참으로 네 말과 같아서 여래는 모든 보살들을 잘 호념하였으며, 모든 보살들에게 잘 부촉(付囑)하느니라.

너는 지금 자세히 들어라. 마땅히 너를 위하여 설하리라. 선남자·선여인이 아누다라삼막삼보리심을 일

으켰으면, 이와 같이 머물며 이와 같이 행복받으라.”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바라전대 기꺼이 듣고자
합니다.”

제 3 분 대승의 바른 종지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이르셨다.

“모든 보살마하살들은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행복받
으라.

‘있는 바 일체 중생 종류인, 알[卵]로 생기는 것 · 태
(胎)로 생기는 것 · 습(濕)으로 생기는 것 · 화(化)하여
생기는 것 · 형상 있는 것 · 형상 없는 것 · 생각 있는
것 · 생각 없는 것 · 생각 있는 것도 아니요 생각 없는
것도 아닌 것들을,

내가 다 무여(無餘)열반에 들도록 하여서 멸도한다.

이와 같이 한량없고 셀 수 없고 가없는 중생을 멸
도(滅度)하나, 실로는 멸도를 얻은 중생이 없다’ 고
하라.

어찌한 까닭이냐? 수보리야, 만약 보살이 아상(我相)과 인상(人相)과 중생상(衆生相)과 수자상(壽者相)이 있으면, 이는 곧 보살이 아니니라.

제 4 분 묘행(妙行)은 머물지 않음

그리고 또 수보리야, 보살은 마땅히 법에 머문 바 없이 보시를 행하여라. 이른바 형상에 머물지 않는 보시이며, 성(聲) · 향(香) · 미(味) · 촉(觸) · 법(法)에 머물지 않는 보시여야 한다.

수보리야, 보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보시하여 상에 머물지 않는다.

어찌한 까닭이냐? 만약 보살이 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면, 그 복덕(福德)을 가히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동쪽 허공을 가히 생각으로 헤아릴 수 있겠느냐?”

“못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야, 남서북방과 사유(四維)와 상하 허공을 가히 생각으로 헤아릴 수 있겠느냐?”

“못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야, 보살의 ‘상(相)’에 머무름이 없는 보시’의 복덕도 또한 다시 이와 같아서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느니라. 수보리야, 보살은 오로지 마땅히 가르친 바와 같이 머물지니라.

제 5 분 바른 도리를 실답게 봄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는 몸 모양으로 여래를 볼 수 있겠느냐?”

“못보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몸 모양으로 여래는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래께서 말씀하시는 바 몸 모양은 곧 모양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이르셨다.

“무릇 있는 바 상(相)은, 다 이것이 허망하니,
만약 모든 상이 상 아님을 보면, 곧 여래를 보리라.”

제 6 분 바른 믿음은 희유하다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어떤 중생이 이와 같은 말씀의 글귀를 보고 자못 실다운 믿음을 낼 사람이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이르셨다.

“그런 말을 하지 말라. 여래가 멸도에 든 뒤, 후(後) 오백세에 이르러 계(戒)를 가지고 복을 닦는 사람이 있어서, 능히 이 글귀에 신심을 내며 이로써 실다운을 삼으리라.

마땅히 알라. 이 사람은 일 불(佛)이나 이 불이나 삼사 오 불에게 선근(善根)을 심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한량없는 천만 불께 모든 선근을 심었으므로, 이 글귀를 듣고 일념으로 조출한 믿음을 내는 사람이다.

수보리야, 여래는 이 모든 중생들이 이와 같이 한량없는 복덕을 얻는 것을 다 알며 다 본다.

어찌한 까닭이냐?

이 모든 중생은 아상이 없으며, 인상·중생상·수자상도 없으며, 법상(法相)도 없으며 또한 법 아닌 상도 없기 때문이다.

어찌한 까닭이냐?

이 모든 중생들이 만약 마음에 상을 취하면, 곧 아상과 인상과 중생상과 수자상에 집착함이 되며, 만약 법상을 취하더라도 곧 아상과 인상과 중생상과 수자상에 집착함이 된다.

어찌한 까닭이냐?

만약 법 아닌 상을 취하더라도 이는 곧 아상과 인상과 중생상과 수자상에 집착함이 된다.

때문에 마땅히 법을 취하지 말아야 하며, 마땅히 법 아님도 취하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뜻이기 때문에 여래는 항상 말하되,

‘너희들 비구는 나의 설법을 뗏목으로 비유한 바와 같다고 아는 자는, 법도 오히려 마땅히 버려야 하거늘, 어찌 하물며 법 아님이랴!’ 하느니라.

제 7 분 얻을 것도 없고 설할 것도 없음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래가 아누다라삼막삼보리를 얻었느냐?

여래가 설한 바 법이 있느냐?”

수보리가 말씀드렸다.

“제가 부처님의 말씀하신 바 뜻을 이해하옵 같아서
는, 아누다라삼막삼보리라 할 정한 바 없사오며, 또
한 여래께서 가히 설하신 정한 바도 없습니다.

무슨 까닭인가 하면, 여래가 설하신 법은 다 취할 수
없사오며, 말할 수도 없사오며, 법도 아니오며, 법 아
님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유를 말씀드리면, 일체 성현이 다 무위법(無爲法)
을 쓰시어 차별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 8 분 법(法)에 의하여 출생함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만약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세계(三千大千世界)에 가득 찬 칠보를 가지고 보시에 쓴다면 이 사람이 얻을 바 복덕이 얼마나 많겠느냐?”

수보리가 말씀드렸다.

“몹시 많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이 복덕이 곧 복덕성(福德性)이 아니니, 이 까닭에 여래께서 복덕이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다시 어떤 사람이 이 경 가운데 사구偈(四句偈)만이라도, 받아 지니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말해주면, 그 복덕이 앞에 말한 보시보다 나으리라.

왜냐하면 수보리야, 일체 모든 부처님과 모든 부처님의 아누다라삼막삼보리법이 다 이 경으로부터 나오는 까닭이다.

수보리야, 이른바 불법(佛法)이라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니라.

제 9 분 하나의 상(相)은 상이 없음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수다원(須陀洹)이 능히
‘내가 수다원과를 얻었다’ 하는 생각을 가지겠느냐?”
수보리가 말씀드렸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수다원은 이름으로
성류(聖流)에 든다 하나, 실로는 들어간 바가 없어서
형상이나 성 · 향 · 미 · 촉 · 법에 들어가지 아니하니,
이를 수다원이라 이름합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다함(斯陀含)이 능히 ‘내가 사다함과를 얻었다’ 하
는 생각을 가지겠느냐?”
수보리가 말씀드렸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사다함은 이름이
일왕래(一往來)이나, 실로는 오고 가는 바가 없으니,
이를 사다함이라 이름합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나함(阿那含)이 능히
‘내가 아나함과를 얻었다’ 하는 생각을 가지겠느냐?”

수보리가 말씀드렸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아나함은 이름이 불래(不來)이나, 실로는 오지 아니함이 없으니, 이 까닭에 아나함이라 이름합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라한(阿羅漢)이 능히 ‘내가 아라한도를 얻었다’ 하는 생각을 가지겠느냐?”

수보리가 말씀드렸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실로 법 없음을 아라한이라 이름합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아라한이 생각하기를, ‘내가 아라한도를 얻었다’ 하면, 곧 아상과 인상과 중생상과 수자상에 집착함이 됩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저를 무쟁삼매(無諍三昧)를 얻은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으뜸이라 말씀하셨으니, 이는 욕심을 여윈 제일의 아라한이라고 하십니다.

세존이시여, 그러하나 저는 욕심을 여윈 아라한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만약 ‘내가 아라한도를 얻었다’ 고
생각한다면, 세존께서는 곧 수보리에게 아란나행(阿
蘭那行)을 즐기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않았겠지만,
수보리가 실로 행하는 바가 없으므로 수보리는 아란
나행을 즐기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10 분 정토(淨土)를 장엄함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이르셨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래가 옛날 연등불(燃燈佛) 회상에 있었을 때, 법에
있어서 얻은 바가 있겠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여래께서 연등불 회상에 계
실 때, 법에 있어서 실로 얻은 바가 없습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보살이 불국토(佛國土)를 장엄(莊嚴)한다고 하겠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보살이 불국토를 장
엄하는 것은 장엄이 아니고, 그 이름이 장엄입니다.”

“이 까닭에 수보리아, 모든 보살마하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청정한 마음을 낼지니, 마땅히 형상에 머물러 마음을 내지 않고, 성 · 향 · 미 · 촉 · 법에 머물러 마음을 내지 않으며, 마땅히 머문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어라.

수보리아, 비유컨대 만약 어떤 사람의 몸이 수미산왕(須彌山王)만 하다면, 네 생각에 어떠하냐?

그 몸을 크다고 하겠느냐?”

수보리가 말씀드렸다.

“몹시 큼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는 몸 아님을 말씀하시어 큰 몸이라 이름하셨습니다.”

제 11 분 무위복(無爲福)이 수승함

“수보리아, 항하(恒河) 가운데에 있는 모래 수와 같은 항하가 또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 여러 항하에 있는 모래가 얼마나 많겠느냐?”

수보리가 말씀드렸다.

“몹시 많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다만 저 여러 항하만 이라도 오히려 많아서 셀 수 없겠거늘, 하물며 어찌 그 모래이오리까!”

“수보리야, 내 이제 진실한 말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약 어떤 선남자·선여인이 저 항하에 있는 모래 수만큼의 삼천대천세계에 가득 찬 칠보를 가지고 보시에 쓴다면 얻을 바 복이 많겠느냐?”

수보리가 말씀드렸다.

“몹시 많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이르셨다.

“만약 어떤 선남자·선여인이 이 경 가운데서 내지 사구게 만이라도, 받아 지니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말해주면, 그 복덕이 앞에 말한 복덕보다 나으리라.”

제 12 분 바른 가르침을 존중함

“그리고 또 수보리야, 이 경을 설함에는 내지 사구계 등만이라도 마땅히 알아라. 이곳은 일체 세간의 천상과 인간과 아수라가 다 마땅히 공양하기를, 부처님의 탑묘(塔廟)와 같이 하는데, 어찌 하물며 어떤 사람이 능히 다 받아 지니며 읽고 외움이라!

수보리야, 마땅히 알라. 이 사람은 가장 높아 제일가는 희유한 법을 성취하리라.

만약 이 경전이 있는 곳이면, 곧 부처님과 존중하신 제자가 계심이 되느니라.”

제 13 분 법답게 받아지님

그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이 경을 마땅히 무엇이라 이름하며, 저희들이 어떻게 받들어 가지오리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이르셨다.

“이 경의 이름을 금강반야바라밀이라고 하나니,
이 명자(名字)로써 너희들은 마땅히 받들어 가져라.
무슨 까닭이냐?

수보리야, 여래가 말한 반야바라밀이 곧 반야바라밀
이 아니라, 그 이름이 반야바라밀이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래가 설한 바 법이 있겠느냐?”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여래께서는 설하신 바가 없습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삼천대천세계에 있는 가는 먼지를 많다 하겠느냐?”

수보리가 말씀드렸다.

“몹시 많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야, 이 모든 가는 먼지는 여래가 가는 먼지 아
님을 말함이니 그 이름이 가는 먼지이며, 여래가 설
한 세계도 세계가 아니라 이름이 세계이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삼십이상(三十二相)으로 여래를 볼 수 있겠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삼십이상으로 여래를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래께서 말씀하신 삼십이상이 곧 상이 아니고, 그 이름이 삼십이상입니다.”

“수보리야, 만약 어떤 선남자·선여인이 향하의 모래수와 같은 목숨을 바쳐 보시하더라도, 만약 다시 어떤 사람이 이 경 가운데에서 내지 사구계만이라도 받아 지니며 다른 사람을 위하여 말해주면 그 복이 대단히 많으니라.”

제 14 분 상을 여의어 적멸함

이때 수보리는 이 경 설하심을 듣고 깊이 그 뜻을 깨달아 눈물을 흘리며 슬피 울면서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희유합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몸시 깊은 경전을 설하심은, 제가 옛적으로부터 내려오면서 얻은 바 혜안(慧眼)으로는 일찍이 이와 같은 경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다시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들을 수 있어서 신심이 청정하면 곧 실상(實相)이 나오리니, 이 사람은 마땅히 제일 희유한 공덕을 성취하였음을 알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실상이라는 것은 곧 이것이 상이 아니니, 이런 까닭에 여래께서 실상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이와 같은 경을 들을 수 있고 믿어 알고 받아 지니기는 족히 어려울 것이 없으나, 만약 오는 세상 후(後) 오백세에 어떤 중생이 이 경을 들을 수 있고 믿어 알고 받아 지닌다면, 그 사람은 곧 제일(第一) 희유함이 되겠습니다.

이유를 말씀드리면 그 사람은 아상이 없으며, 인상도 없으며, 중생상도 없으며, 수자상도 없는 까닭입니다. 왜냐하면 아상이 곧 상이 아니며, 인상과 중생상과 수자상이 곧 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체 모든 상을 여임을 곧 모든 부처님이라 이름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이르셨다.

“옳다 그렇다.

만약 다시 어떤 사람이 이 경의 말씀을 듣고, 놀래지도 않고 겁내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으면, 마땅히 알라. 이 사람은 제일 희유하다.

어찌한 까닭이냐? 수보리야, 여래가 말한 제일바라밀이 제일바라밀이 아니요, 그 이름이 제일바라밀이다.

수보리야, 인욕바라밀을 여래는 인욕바라밀이 아니라고 말하므로, 이 이름이 인욕바라밀이다.

어찌한 까닭이냐?

수보리야, 내가 옛적에 가리왕(王)에게 몸을 베이고 꿇김을 당하여도, 나는 그때 아상이 없었으며 인상이 없었으며 중생상이 없었으며 수자상도 없었다.

왜냐하면 내가 옛적에 마디마디 사지를 찢기고 꿇길 그 때, 만약 나에게 아상과 인상과 중생상과 수자상이 있었던들, 마땅히 성내고 원망하는 마음을 내었으리라.

또 과거 오백세 동안 인욕선인(忍辱仙人)이 되었을 때를 생각하니, 그 세상에다 아상이 없었고 인상이 없었고 중생상도 없었고 수자상도 없었다.

이 까닭에 수보리야, 보살은 마땅히 일체상을 여의어 아누다라삼막삼보리심을 일으킬지니, 형상에 머물러 마음을 내지 말고, 성·향·미·촉·법에 머물러 마음을 내지 말며, 마땅히 머문 바 없는 마음을 내라.

만약 마음이 머무는 바가 있으면, 곧 머무름이 아니다. 이 까닭에 여래가 말하기를, ‘보살은 마음을 형상에 머물지 아니하고 보시한다’ 고 한다.

수보리야, 보살은 마땅히 일체 중생을 이익되게 하기 위하여 이와 같이 보시하니, 여래가 말한 일체 모든 상은 곧 이것이 상이 아니며, 또 말한 일체 중생도 곧 중생이 아니다.

수보리야, 여래는 참된 말을 하는 사람이며, 실다운 말을 하는 사람이며, 여여(如如)한 말을 하는 사람이

며, 거짓된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며, 다르지 않은 말을 하는 사람이다.

수보리야, 여래가 얻은 바 법인 이 법은, 실다움도 없고 헛됨도 없다.

수보리야, 만약 보살이 마음을 법에 머물러 보시하면, 마치 사람이 어둠 속에 들어감에 곧 보이는 바가 없는 것과 같고, 만약 보살이 마음을 법에 머물지 아니하고 보시하면, 눈 밝은 사람이 햇빛이 밝게 비치므로 가지가지 형상을 보는 것과 같다.

수보리야, 장차 오는 세상에서 만약 어떤 선남자·선여인이 능히 이 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면, 곧 여래가 불(佛)지혜로써 이 사람을 다 알며 이 사람을 다 보나니, 모두가 헤아릴 수 없고 가 없는 공덕을 성취하게 되리라.

제 15 분 경을 지니는 공덕

수보리야, 만약 어떤 선남자·선여인이 아침에 향하의 모래 수와 같은 몸으로 보시하고, 낮에 다시 향하

의 모래 수와 같은 몸으로 보시하며, 다시 저녁 때에도 또한 항하의 모래 수와 같은 몸으로 보시하여 이와 같이 무량 백천 억겁 동안을 몸으로 보시하더라도,

만약 다시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을 듣고 믿는 마음으로 거슬리지 아니하면, 그 복이 앞에 말한 보시보다 나으리니, 어찌 하물며 이 경을 베껴쓰고 받아 지니며 읽고 외우며 남을 위하여 해설해 줌에 있어서랴! 수보리야, 간추려 말할진대, 이 경은 생각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끝이 없는 공덕이 있다.

여래는 대승에 발심(發心)한 사람을 위하여 이 경을 설하며, 최상승(最上乘)에 발심한 사람을 위하여 이 경을 설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능히 이 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며 널리 사람들을 위하여 설명한다면, 여래는 이 사람을 모두 알며 이 사람을 모두 보니, 이 사람은 헤아릴 수 없고 말할 수 없고 끝이 없고 생각할 수 없는 공덕을 성취하게 된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곧 여래의 아누다라삼막삼보리를 짚어짐이 되나니, 어찌한 까닭이냐?

수보리야, 만약 작은 법을 즐기는 사람이라면 아견과 인견과 중생견과 수자견에 집착하게 되므로, 능히 이 경을 받아 듣고 읽고 외우며 사람들을 위하여 해설하지 못한다.

수보리야, 어떠한 곳이든 이 경이 있는 곳이면 일체 세간의 천상과 인간과 아수라 등이 마땅히 공양하는 바가 되니, 마땅히 알라. 그곳은 곧 탑이 된다. 모두가 응당 공경하고 예배하며 에워싸고 가지가지 꽃과 향을 그곳에 흠뿌리리라.

제 16 분 능히 업장을 깨끗이 함

다시 또 수보리야, 선남자·선여인이 이 경을 받아 지니며 읽고 외우더라도, 만일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이 되면, 이 사람은 선세(先世)의 죄업으로 마땅히 악도에 떨어질 것이로되, 금세(今世)의 사람들이 업신여김으로써 곧 선세의 죄업이 소멸되고, 마땅히 아누

다라삼막삼보리를 얻게 된다.

수보리야, 내가 과거 무량아승지겁을 생각하니, 연등 불을 뵈옵기 그 이전에도 팔백사천 나유타의 여러 부처님을 만나, 모두 다 공양하고 받들어 섬기며 헛되지 내지 않았다.

만약 다시 또 어떤 사람이 앞으로 오는 말세(末世)에, 능히 이 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워서 얻을 바 공덕은, 내가 전에 모든 부처님께 공양한 공덕으로는 백분의 일도 되지 못하며, 천만 억분의 일도 되지 못하며, 내지 숫자를 있는 대로 비교하고 비유하여도 능히 미칠 바가 못된다.

수보리야, 만약 어떤 선남자·선여인이 앞으로 오는 말세에, 이 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워서 얻을 바 공덕을 내가 다 갖추어 말한다면, 혹은 어떤 사람이 듣고 곧 마음이 산란하여 의심하며 믿지 아니하리라.

수보리야, 마땅히 알아라. 이 경은 뜻도 가히 생각할 수 없고 과보 또한 생각할 수 없느니라.”

제 17 분 마침내는 아(我)가 없음

그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사루어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선남자 · 선여인이 아누다라삼막삼보리심을 일으켰으니, 마땅히 어떻게 머물며 어떻게 그 마음을 행복받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이르셨다.

“만약 선남자 · 선여인이 아누다라삼막삼보리심을 일으켰으면, 마땅히 이와 같은 마음을 내어야 하니, ‘내가 마땅히 일체 중생을 멸도하리라’고 하라.

일체 중생을 멸도한다고 하지만, 실로 한 중생도 멸도되는 중생은 없다.

왜냐하면 수보리야, 이 보살이 아상과 인상과 중생상과 수자상이 있으면 곧 보살이 아니니, 그 까닭이 무엇이나? 수보리야, 실로 법이 있지 않음이 아누다라삼막삼보리심을 일으키는 것이 된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래가 연등불 회상에 법이 있어서 아누다라삼막삼보리를 얻었겠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님께서 설하신 바 뜻을 이해함 같아서는, 부처님이 연등불 회상에서 법이 있어서 아누다라삼막삼보리를 얻으심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옳다 그렇다. 수보리야, 실로 법이 있지 않으므로 여래가 아누다라삼막삼보리를 얻었다.

수보리야, 만약 법이 있어 여래가 아누다라삼막삼보리를 얻었다면, 연등불이 나에게 수기를 주시면서, ‘네가 내세에 마땅히 부처를 이루리니, 호를 석가모니라고 하리라’ 고 하지 않았겠지만, 실로 법이 있지 않으므로 아누다라삼막삼보리를 얻었다.

때문에 연등불께서 나에게 수기를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세에 마땅히 부처를 이루리니, 호를 석가모니라고 하리라’ 고 하셨다.

왜냐하면 여래라 함은 곧 모든 법이 여여(如如)하다는 뜻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여래가 아누다라삼막삼보리를 얻었다’고 한다면 수보리야, 실로 법이 있지 않으므로 여래는 아누다라삼막삼보리를 얻었다.

수보리야, 여래가 얻은 바 아누다라삼막삼보리 가운데에는 실다움도 없고 헛됨도 없다.

이 까닭에 여래가 말하기를, ‘일체법이 다 불법(佛法)’이라고 말한다.

수보리야, 말한 바 일체법이란 것도 곧 일체법이 아니니, 그러므로 일체법이라 이름한다.

수보리야, 비유컨대 사람의 몸이 장대(長大)함과 같다.”

수보리가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여래께서 말씀하신 사람 몸의 장대함도 곧 이것이 큰 몸이 아니고 그 이름이 큰 몸입니다.”

“수보리야, 보살도 이와 같다. 만약 말하기를, ‘내가 마땅히 무량중생을 멸도하리라’ 한다면, 이는 곧 보

살이라 이름할 수 없다.

어찌한 까닭이냐? 수보리야, 실로 법이 있지 않기에 보살이라 이름한다. 때문에 여래가 말하기를, ‘일체 법이 아(我)도 없고 인(人)도 없고 중생(衆生)도 없고 수자(壽者)도 없다’고 한다.

수보리야, 만약 보살이 말하기를, ‘내가 마땅히 불국토를 장엄하리라’ 한다면, 이는 보살이라 할 수 없나니, 왜냐하면 여래가 말하는 바 불국토 장엄은 이것이 장엄이 아니고, 그 이름이 장엄이다.

수보리야, 만약 보살이 아(我)와 법(法)이 없음을 통달하면, 여래는 이 사람을 참된 보살마하살이라고 말하느니라.

제 18 분 하나의 몸은 한 가지로 봄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래가 육안(肉眼)이 있느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여래께서는 육안이 있습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래가 천안(天眼)이 있느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여래께서는 천안이 있습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래가 혜안(慧眼)이 있느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여래께서는 혜안이 있습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래가 법안(法眼)이 있느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여래께서는 법안이 있습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래가 불안(佛眼)이 있느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여래께서는 불안이 있습니다.”

“수보리아,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 항하 가운데 있는 모래를 여래가 말한 적이 있느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여래께서는 그 모래를 말
씀하셨습니다.”

“수보리아,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 한 항하 가운데 있는 모래 수와 같은 항하가 또 있
어서, 이 모든 항하에 있는 바 모래 수만큼의 불세계
(佛世界)가 다시 있다면 얼마나 많겠느냐?”

“몹시 많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이르셨다.

“저 국토 가운데 있는 바 중생의 가지가지 마음을
여래가 다 아느니라.

어찌한 까닭이냐?

여래가 말한 바 모든 마음이 다 마음이 아니요,
그 이름이 마음인 까닭이다.

왜냐하면 수보리아,

지나간 마음도 얻을 수 없으며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으며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느니라.

제 19 분 법계에 통하여 교화하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만약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세계에 가득 찬 칠보를 가지고 보시에 쓴다면, 그 사람이 이 인연으로 얻는 복이 많다 하겠느냐?”

“그러합니다. 세존이시여, 그 사람은 이 인연으로 몹시 많은 복을 얻겠습니다.”

“수보리야, 만약 복덕에 실다움이 있다면, 여래가 얻는 복덕이 많다고 말하지 않겠지만, 복덕이 없기에 여래가 많은 복덕을 얻는다고 말하느니라.”

제 20 분 색과 상을 여의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래를 구족(具足)한 색신(色身)으로 볼 수 있겠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여래는 마땅히 구족한 색신으로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래께서 말씀하시는 구족한 색신은 곧 구족한 색신이 아니고, 그 이름이 구족한 색신입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래를 가히 모든 상이 구족한 것으로 볼 수 있겠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여래는 모든 상이 구족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어찌한 까닭인가 하면, 여래께서 말씀하신 모든 상의 구족함이 곧 구족함이 아니고, 그 이름이 모든 상을 구족함입니다.”

제 21 분 말이 아님을 설함

“수보리야, 너는 여래가 생각하기를,
‘내가 마땅히 설한 바 법이 있다’ 고 말하지 말아라.

이런 말하지 말지니, 어찌한 까닭이냐?

만약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여래가 설한 바 법이 있다’ 고 한다면, 이는 여래를 비방함이 되니, 내가 설한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수보리야, 법을 설한다는 것은 법이 없음을 가히 말하는 것이니, 그 이름이 법을 설함이다.”

그때 혜명(慧命)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자못 어떤 중생이 미래세에 이 법 설하심을 듣고 믿는 마음을 내오리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야, 저들은 중생이 아니며 중생 아님도 아니니, 어찌한 까닭이냐? 수보리야, 중생·중생이라 하는 것은 여래가 중생 아님을 말하는 것이니, 그 이름이 중생이니라.”

제 22 분 법은 가히 얻을 것이 없음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아누다라삼막삼보리를 얻으심은, 얻은 바가 없음이 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옳다 옳다. 수보리야, 내가 아누다라삼막삼보리를 얻음에 있어서 내지 조그마한 법도 얻음이 없으니, 이를 아누다라삼막삼보리라 이름하느니라.

제 23 분 깨끗한 마음으로 선을 행함

다시 또 수보리야, 이 법이 평등하여 높고 낮음이 없으니, 이름이 아누다라삼막삼보리이다.

아(我)도 없고 인(人)도 없고 중생(衆生)도 없고 수자(壽者)도 없이, 일체 선법(善法)을 닦으면 곧 아누다라삼막삼보리를 얻게 된다.

수보리야, 선법이라고 말하지만 여래는 곧 선법 아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니, 그 이름이 선법이니라.

제 24 분 복과 지혜는 비교하지 못함

수보리야, 만약 삼천대천세계 가운데 있는 바, 모든 수미산왕만한 칠보 무더기를 가지고 어떤 사람이 보시에 쓰더라도, 만약 또 어떤 사람이 이 반야바라밀경이나 내지 사구계 등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며 다른 사람을 위하여 말해준다면, 앞의 복덕으로는 백분의 일도 미치지 못하며 백천만 억분의 일도 되지 못하며, 내지 숫자를 있는 대로 비유할지라도 능히 미치지 못한다.

제 25 분 교화하여도 교화함이 없음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들은 여래가 ‘내가 마땅히 중생을 제도한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하지 말아라. 수보리야, 이런 생각을 하지 말아라.

어찌한 까닭인가? 실제로는 여래가 제도할 중생이 없나니, 만약 중생이 있어서 여래가 제도한다면, 여래에게 아상과 인상과 중생상과 수자상이 있는 것이 된다. 수보리야, 여래가 ‘내[我]가 있다’고 말한 것은 곧 내가 있음이 아니거늘, 범부(凡夫)들은 이를 ‘내가 있다’고 한다. 하지만 수보리야 범부라고 하지만, 여래는 말하기를 ‘범부가 아니다’고 하느니라.

제 26 분 법신(法身)은 상(相)이 아님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삼십이상으로 여래를 관(觀)할 수 있겠느냐?”

수보리가 말씀드렸다.

“그렇습니다. 삼십이상으로 여래를 관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아, 만약에 삼십이상으로 여래를 관한다면
전륜성왕(轉輪聖王)도 곧 여래이리라.”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 뜻을 헤
아리면, 마땅히 삼십이상으로 여래를 관할 수 없습니
다.”

그때 세존께서 계송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형상으로 나를 보려 하거나,
음성으로 나를 찾으려 한다면,
이 사람은 사도(邪道)를 행함이니,
여래를 능히 뵈옵지 못하리라.”

제 27 분 단멸(斷滅)이 아님

“수보리야, 네가 만약 생각하기를,
‘여래는 구족한 상(相)을 갖추었기에 아누다라삼막삼
보리를 얻은 것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
수보리야, 이런 생각을 말아라. ‘여래는 구족한 상을
갖추었기에 아누다라삼막삼보리를 얻은 것이 아니
다’ 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수보리야, 네가 만약 생각하기를,
‘아누다라삼막삼보리심을 일으키는 사람은 모든 법
의 단멸(斷滅)을 말함이라’ 고 한다면, 이런 생각을 말
아라.

어찌한 까닭이냐? 아누다라삼막삼보리심을 일으키
는 사람은 법에 있어서 단멸상(斷滅相)을 말하지 않
느니라.

제 28 분 받지도 않고 탐내지도 아니함

수보리야, 만약 보살이 항하의 모래 수와 같은 세계에 가득 찬 칠보를 가지고 보시에 썼더라도, 만약 또 다른 사람이 일체법이 아(我)가 없음을 알아 인(忍)을 이루게 되면, 이 보살이 앞의 보살이 얻는 공덕보다 나으리라.

어찌한 까닭이냐?

수보리야, 모든 보살들이 복덕(福德)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어찌하여 보살이 복덕을 받지 않습니까?”

“수보리야, 보살은 지은 바 공덕을 마땅히 탐착(貪着)하지 아니하니, 이 까닭에 복덕을 받지 않는다고 말하느니라.

제 29 분 위의가 적정함

수보리야, 만약 어떤 사람이 ‘여래가 온다거나 간다거나 앓는다거나 눕는다’고 말한다면, 이 사람은 내가 설한 뜻을 알지 못한다.

어찌한 까닭이냐? 여래는 어디로 좇아오는 바도 없으며, 가는 바도 없으므로, 여래라고 이름하느니라.

제 30 분 하나에 합한 이치의 모양

수보리야, 만약 선남자 · 선여인이 삼천대천세계를 부수어 가는 먼지를 만들었다면, 네 생각에 어떠하냐? 이 가는 먼지가 얼마나 많겠느냐?”

“몹시 많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어찌한 까닭인가?

만약 이 가는 먼지가 실로 있는 것이라면, 부처님께서 곧 저 가는 먼지라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슨 까닭인가 하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는 먼지가 곧 가는 먼지가 아니며, 그 이름이 가는 먼지입니다.

세존이시여, 여래께서 말씀하신 바 삼천대천세계도 곧 세계가 아니고, 그 이름이 세계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세계가 실로 있는 것이라면, 곧 이것은 하나로 뭉친 모양이니, 여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로 뭉친 모양도 곧 하나로 뭉친 모양이 아니고, 그 이름이 하나로 뭉친 모양입니다.”

“수보리야, 하나로 뭉친 모양이라 하는 것은 이것이 말할 수 없는 것인데도, 다만 범부(凡夫)인 사람들이 그것에 탐착하느니라.

제 31 분 지견을 내지 아니함

수보리야, 만약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여래가 아견과 인견과 중생견과 수자견을 말하였다’고 하면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사람이 내가 말한 바 뜻을 아는 것이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이 사람은 여래의 설하신 바 뜻을 알지 못합니다.

어찌한 까닭인가 하면, 세존께서 말씀하신 아견과 인견과 중생견과 수자견은 아견 · 인견 · 중생견 · 수자견이 아니고, 그 이름이 아견 · 인견 · 중생견 · 수자견입니다.”

“수보리야, 아누다라삼막삼보리심을 일으킨 사람은 일체법에 마땅히 이와 같이 알며, 이와 같이 보며, 이와 같이 믿고 이해하며, 법상(法相)을 내지 말아라. 수보리야, 말한 바 법상이란 것도 여래가 곧 법상이 아니요, 그 이름이 법상임을 말하느니라.

제 32 분 응화는 참이 아님

수보리야, 어떤 사람이 무량 아승지 세계에 가득 찬 칠보(七寶)를 가지고 보시에 쫓더라도, 만약 보살심(菩薩心)을 일으킨 선남자 · 선여인이 있어 이 경을 지니며 내지 사구계(四句偈) 등이라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며 다른 사람을 위하여 풀어 말하면, 그 복이 앞에 말한 보시보다 나으리라.

어떻게 사람을 위하여 풀어 말할까?
상을 취하지 아니하므로 여여하여 동(動)하지 않는다.
어찌한 까닭이냐?

일체 함이 있는 모든 법은
꿈이며 환이며 물거품이며 그림자 같으며
이슬과 같고 또한 번개와도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觀)할지니라.”

부처님께서 이 경을 설하여 마치시니, 장로 수보리와
모든 비구·비구니와 우바새·우바이와 일체 세간의
천상·인간과 아수라 등이 부처님의 말씀하심을 듣
고, 모두 크게 환희하여, 믿고 받아 받들어 행하니라.